



## ‘골잡이들 화끈한 득점 경쟁’

▲독일-이탈리아(5일 4시·도르트문트)  
외견상으로는 전차군단의 화력과 아주 리군단의 빗장수비가 맞붙는 대결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득점력도 만만찮다. 독일은 8강까지 11골, 이탈리아는 9골을 뽑았다.  
독일은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큰 자산이다. 독일 국민은 대회 개막 전에는 자국의 우승을 믿는 비율이 17%에 불과했지만 4강에 진출하자 75%가 우승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개최국의 이적에 클로제, 루카스 포돌스키 ‘양포’의 위력, 든든한 레만의 뒷단속을 더해 16년만의 우승을 꿈

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다. 전통적으로 토너먼트를 거쳐가면서 강해지는 스타일의 이탈리아는 8강 우크라이나전에서 늦깎이 골잡이 루카 토니가 두 골을 뽑아내면서 확실한 득점 무기를 장착한 게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빗장수비(카테나치오)도 ‘명불허전’이다. 이탈리아는 8강까지 5경기에서 1실점했지만 조별리그 미국전의 유일한 실점은 크리스티안 차카르도의 자책골이었다. 상대 공격수에게는 단 1실점도 허용하지 않은 셈이다.

## 유럽의 ‘4龍’들 혈투만 남았다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4龍(龍)의 버림꼴 승부만 남았다.  
독일-이탈리아, 포르투갈-프랑스의 4강 대결로 좁혀진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는 1982년 스페인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유럽 국가만이 4강을 겨루는 대회로 남게 됐다. 더불어 ‘개최 대륙에서 우승국이 나온다’는 징크스도 이어졌다. 북중미를 남미의 범주로 볼 때 두 번의 예외는 1958년 스웨덴월드컵에서 우승한 브라질과 아시아에서 열린 2002년 한·일월드컵 뿐이었다.

## ‘허리의 힘’...“우리가 더 세다”

▲포르투갈-프랑스(6일 4시·뮌헨)  
양팀의 대결은 유럽을 대표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한 시대를 풍미한 루이스 피구와 지단의 ‘마지막 매치업’으로도 관심을 끈다.  
지단은 이미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 피구도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피구와 지단은 공통적으로 ‘팀의 공격 스피드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역시 ‘큰 물에서 노는 대어’답게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복은 장맛’을 드러내고 있다.

두 팀의 라인업 비교에서는 공격진에서는 아무래도 양리가 포르투갈의 파울레타에 비해 무게감이 높고 미드필더진에서는 피구, 데쿠, 마니시 등이 버티는 포르투갈과 지단, 프랑크 리베리, 파트릭 비에라 등의 프랑스가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수비진은 윌리엄 갈라스, 밀리앙 튀랑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포백이 이름값에서 앞서지만 활동력은 포르투갈의 좌·우 윙백 누누 발렌트, 미겔이 밀리지 않는다.  
양팀 역대 전적은 프랑스가 1996년 이후 4전 전승으로 압도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아트사커’ 부활

### ■ 8강전 경기 결과

#### 양리 환상의 인사이드 발리슛

▲프랑스-브라질(1-0)  
프랑스는 0-0으로 전반을 마친 뒤 후반 12분 호나우두를 찌르는 지단의 볼 묘기 이후 카푸가 말루다에게 파울을 해 세트플레이 찬스를 잡았다.  
미드필드 왼쪽측면에서 지단은 오른쪽으로 길게 발을 감았고 프리킥이 날아오는 계책을 보고 점프한 양리는 공중에 뜬 채 오른쪽 인사이드로 발리슛을 때려 결승점을 뽑아냈다.

#### 램퍼드 등 3명 승부차기 실패

▲포르투갈-잉글랜드(승부차기 3-1)  
양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운명을 맡겼다. 포르투갈은 승부차기에서 첫번째 키커로 나온 시망 사브로자가 왼쪽 구석으로 차 넣은 뒤 두번째 우구 비아나와 프리가 실축하며 주춤했지만 엘테르 포스티가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다.  
잉글랜드는 첫 키커 램퍼드가 실축한 이후 두번째로 나선 오언 하그리브스가 골을

넣으며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제라드와 제이미 캐러거가 연속으로 실패하며 고개를 떨궜다.

#### ‘거미손’ 양스 레만 2골 선방

▲독일-아르헨티나(승부차기 4-2)  
아르헨티나는 후반 4분 로베르토 아알라가 헤딩골을 터트리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독일은 후반 35분 클로제의 헤딩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양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독일은 1~4번 키커가 모두 골로 연결시켰지만 아르헨티나는 2번 키커 아알라와 4번 키커 에스테반 캄비아소의 슈팅이 ‘철의 장막’ 양스 레만의 손끝에 걸리면서 독일에 4강 티켓을 내주고 말았다.

#### 토니 후반 2골 승부에 종지부

▲이탈리아-우크라이나(3-0)  
이탈리아는 전반 6분 잠브로타가 원발 슈팅으로 우크라이나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후반 14분 루카 토니의 헤딩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한 이탈리아는 후반 14분 토니가 헤딩골을 터트리면서 3-0 승리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떠나는 지단 ‘무서운 투혼’

### ‘월드컵 이후 은퇴’ 선언 브라질전 최우수 선수에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연구 그룹(TSG)은 득점자 양리가 아닌 지단을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8년 전 프랑스 월드컵 결승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혼자 두 골을 몰아넣어 3-0 승리와 함께 우승컵을 안긴 지단은 또 다시 ‘삼바군단’을 눈물짓게 했다. 지단은 스페인과 16강전에서 다리를 다쳐 이후 팀 훈련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날 변함없이 주장 완장을 차고 ‘아트사커’ 프랑스의 중원을 호령했다.  
전반 두 차례의 직접 프리킥이 수비벽에 걸리기도 하고 몇 차례 페스미스를 컵경기장에서 열린 세계 최강 브라질과 독일 월드컵 8강전에서 후반 12분 터져 리 양리의 결승골을 도와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호나우두 ‘쓸쓸한 퇴장’

### 월드컵 최다 15골 기록 불구 “큰 목표 못이뤄 아쉽다” 짐싸

브라질 ‘삼바 군단’의 대들보인 호나우두(30)와 호나우지뉴(26)가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짐을 싸게 됐다.  
이들이 있기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월드컵 축구대회 2연패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지만 결국 2일 열린 8강전에서 두 명이 제 몫을 못하면서 브라질은 또 한 번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똥보 논란’에 휩싸이며 자신감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던 호나우두는 이번 대회에서 3골을 넣어 월드컵 통산 15호 골로 이 부

문 1위에 등극하는 소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평이다. 순간적으로 날리는 슈팅에는 위력이 있었지만 유연한 몸놀림에서 나오는 화려한 개인기는 예전만 못했다는 것이다.  
호나우두는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위대한 팀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팀”이라고 예의를 차리면서도 “매우 슬프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목표를 갖고 왔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호나우두는 그나마 3골이라도 넣으며 면피를 했지만 호나우지뉴는 5경기를 뛰면서 어시스트 1개에 그쳐 더욱 쓸쓸한 퇴장이 됐다.

## ‘삼바군단’ 침몰

